

사회

■ 여수세계박람회 개막 첫 주말 문제점은

입장권 불량·예약체크 안돼 불편

휠체어 통로 없고 전시관 영어 자막 안 나와

지난 12일 방문객을 맞이 시작한 여수세계박람회의 관람객이 당초 조차 예정의 절반에도 못 미치면서 큰 혼잡없이 첫 주말을 보냈다. 하지만 곳곳에서 시설물이 파괴되고 셔틀 버스 운행, 장애인 배려 등에서 미숙한 점을 드러내면서 남은 기간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돌발 사고=13일 여수박람회 조차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박람회장 해양광장 분수대 앞 보도블럭이 지름 1m가량 원형대로 내려앉은 사고가 발생했다.

조치위는 지난 밤에 침하가 보도블럭 아래 깔린 분수대로 물을 공급하는 펌프장치의 누수현상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곧바로 시설반을 투입해 긴급

안전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곧바로 보수공사가 이뤄지지 않아 이날 하루 동안 분수대는 가동이 중단돼 관람객들은 아쉬움을 달랠 수 없었다.

◇세심한 배려 부족=장애인과 노약자,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다소 부족해 개선해야 할 점들로 지적되고 있다. 대다수의 전시관에서는 전시 영상에서 영어 등 외국어 자막을 찾아볼 수 없어 전시관을 찾은 외국인들이 불편을 겪었다.

또 휠체어 전용 관람 통로 등이 없어 아쿠아리움 등 인기 전시관에서는 휠체어 장애인들이 밀려드는 입장객들에게 부딪히는 사고가 잇따랐고 수족관 자체가 입장객들에게 가려 관람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잇따라 발생했다.

노인 관람객들은 예약제로 운영되는 8개 전시관 관람에 어려움을 겪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 같은 이유는 예약제 전시관 이용을 위해서는 키오스크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예약을 해야 하는데, 짧은 층들의 경우는 때와 장소를 가지지 않고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예약을 할 수 있었지만 노인들은 예약을 위해 개장 첫날 피약별 아래서 최대 50여m까지 줄을 늘어선 적이 있었다.

◇아간 서비스 미흡=환승주차장과 박람회장을 오가는 셔틀버스가 폐장시간인 밤 11시까지만 운행돼 입장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특히 전시관 관람을 위해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여수박람회의 경우 박람회장에 뉴미디어쇼, 수상공연페스티벌 등의 '알짜 공연'이 집중돼 있어 늦은 시간 박람회장을 나서는 사람들을 위해 배려가 필요하다.

◇입장권 예약도 문제=입장권 예약 시스템과 발매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한 관람객의 경우는 인터넷과 상담원을 통해 전기간권을 구매했지만 전산오류로 인해 예약한 입장권을 받지 못했다. 또 한 가족의 경우는 구매한 입장권이 키오스크에서 작동하지 않아 두차례에 교환을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서우정(여·41·서울시 성북구)씨는 "처음 입장할 때부터 구매한 입장권 6개 중에서 4개에서 불량이 발생해 교환을 했는데, 교환한 입장권도 키오스크에서 작동하지 않았다"며 "전시관 예약을 위해 키오스크 앞에서 1시간 가량을 허비했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이 13일 박람회장 해양광장 분수대에 물을 공급하는 펌프장치 누수로 침하된 보도블럭을 긴급 보수하고 있다.

/여수=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경 아파트 투신 사망

13일 오전 9시30분께 영광군 영광읍 모 아파트 화단에 영광경찰서 소속 전경 이모(21·이경)씨가 떨어져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전날 부대 옥상에서 넘어져 영광읍 내 한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었던 이씨는 이날 병원측에 생필품을 사겠다며 외출했다.

경찰은 주변 동료 전경과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조익성기자 ischo@

불법 고리채가 부른 비극

빛독촉 조폭 사채업자 살해 화장실에 사채 유기

장성경찰, 2명 검거

채무 변제를 독촉하던 조폭력배 출신 사채업자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30대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장성경찰은 13일 "살인 및 사채유기 혐의로 성모(31)씨와 윤모(24)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해 10월 조폭력배인 사채업자 광모(31)씨로부터 1000만원을 빌렸으나 이후 늘

은 이자로 3500만원까지 불어나면서 수십 차례에 걸쳐 돈을 갚으라는 독촉에 시달리자 유흥업소에서 알게 된 후배 윤씨와 공모해 광씨를 살해한 혐의다.

이들은 광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광주시 남구에 있는 윤씨의 주택 재래식 화장실에 유기한 뒤 시멘트로 바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성씨는 윤씨와 공모해 지난 3일 오전 3시20분께 광씨에게 수면제를 섞은 드링크를 마시게 한 뒤 광씨가 잠이 들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광씨의 가출신고가 접수된 뒤 범죄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집중 수사하는 과정에서 성씨 등의 범죄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성씨와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중부취재본부=김홍호기자 yongho@

전교조 광주지부 간부 상고심도 유죄

대법,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광주지부장 윤모(54)씨 등 광주지부 간부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 전임자라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다고 봐야 하고, 공무원법상 금지하는 '공무 외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윤씨 등이 정치적 의사 표현을 위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할 것을

결의한 점 등이 인정되고, 이 집회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명백하게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의 해산명령이 적법하다고 봤다.

윤씨 등은 전교조 광주지부 간부들로 2009년 6월 전교조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참여 교사들에 대한 교육당국의 징계 방침을 비난하는 규탄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윤씨에 100만원, 정모 사무처장에 5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하고 김모 수석지부장과 김모 정책실장 등 2명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영광 뇌물 공무원 무죄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최철민 판사는 최근 직무와 관련된 업무로부터 1100여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영광군 상하수도 사업소 공무원 김모(39)씨와 주모

(55)씨 등 건설업자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업자들이 김씨에게 돈을 송금한 것은 인정되지만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술먹고 바다 추락 선원 극적 구조

○...13일 새벽 3시 20분께 진도군 서망항 앞바다에 추락한 신모(51·고흥군)씨가 해양경찰관에 의해 구조.

○...공사용 부표를 잡고 허우적거리던 신씨는 낚시어선 출항 점검에 나선 목포해경 진도파출소 경찰관에 발견됐으며 구조 당시 저체온증을 호소,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해경조사 결과 9.77급 연안자망어선 선원인 신씨는 어선에서 술을 마시고 이동하다 미끄러지면서 바다로 추락.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산행 중 야생화·산나물 주의

월출산서 50대 철쭉 먹고 마비 헬기이송

철쭉에는 먹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진 은방울꽃, 동의나물꽃, 샷나물꽃 등에 많이 함유된 그레이아노톡신이라는 독성물질이 함유돼

있어 어지러움증과 마비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진달래를 비롯해 아가사시, 국화, 동백 등이 먹을

수 있는 꽃으로 알려져 있지만 독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들 꽃을 식용으로 쓸 때는 반드시 암술, 수술, 꽃받침을 제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산행 중 약초를 잘못 알고 식용해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전문지식 없이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태양광, 태양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제 전기세, 난방비걱정은 평생 끝!! 우리집 에너지는 내가 만들어 쓴다!

신속 계획중인 고객분께는 더 많은 혜택을 드립니다!

겨울엔 난방! 여름엔 에어컨! 한수물! 도 태양열로~

발전률 시와하면 눈앞에 엄청난 양으로 확인됩니다.

주목용 태양광 3kW

태양열나바시스템

태양열온수시스템

설치전문업체가 국내 최저의 가격으로 최고효율의 태양광,태양열을 설치할 절호의 기회를 드립니다.

주택용 태양광 한전 연계형 계통설비 (3kw이하~10kw이하)설치계통합니다.

최장 36개월 분할상환 가능

영업관리 사원모집

태양광발전(주택용) 설치 후 효과 (원 350kwh 생산 기준표)

기준청구요금(사용전력량 : kwh)	설치시 청구요금	절감요금
5만원(약 321kwh)일때	약 1,130원	48,870원
10만원(약 454kwh)일때	약 8,020원	92,270원
15만원(약 531kwh)일때	약 18,380원	131,810원
20만원(약 597kwh)일때	약 31,010원	169,510원
25만원(약 662kwh)일때	약 47,440원	202,640원
30만원(약 728kwh)일때	약 66,850원	233,150원

어떠한 궁금점이라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1588-4208 010-3624-5399 010-4764-0531

NAVER 강남산업 검색

법인등록번호 : 409-86-22826 (주)강남산업 KANGNAM INDUSTRY

이태리가구 50% SALE

첫 파격세일 다음달 25일까지

소파, 식탁/좌탁, 라텍스 매트리스

쇼핑몰 www.hong79.com NAVER 홈스페이스 검색

세계최고 수면과학 단롭필로, 삼사, 라텍스 런칭기념 (숙면을 원하시는 분 · 척추질환이 있으신분)

고객님의 매트리스는 아래와 같습니까?

머리 — 어깨 — 척추 — 엉덩이 — 허벅지 — 종아리 — 다리

5% — 15% — 60% — 15% — 5%

수면시 힘의 분포도

라텍스, 소파, 식탁 신상품 입점

동구 장동 58-15 장동로터리 (구도청옆)

홍스케이프 1899-0240